

지역 메아리

완주테크노밸리 신규투자

다인스·디엔티·에스엠이엔지·인에코로 4개 기업 263억원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

완주군 농어업회의소가 완주군청 문예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농어업회의소 창립총회는 농어업 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하고, 회의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도 열렸다.

완주군은 지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이후 행정,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설립추진단과 실무TF/팀을 운영해 지난해 8월 조례를 제정하고 창립총회를 갖게 됐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상공인의 법적 기구인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구로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협치 농정 구현을 위한 대의기구의 위상을 가진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보건소 결핵예방 캠페인

최근 대형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의 결핵 확진, 산후조리원 의료진의 결핵 발병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가운데, 결핵 예방관리의 중요성과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지난 22일 전통시장 일원에서 결핵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은 법정 감염병 75종 중 가장 높으며, 지난 2016년 결핵 환자 수는 39,245명,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2,200여명에 이른다.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기침할 때는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 습관이 필요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

김제시는 지난 23일 부림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김제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위해 부림면의 요청에 의해 마련된 자리로 각 마을 이장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중장기계획의 필요성과 전수조사 방법, 장단점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이장들은 경계설정에 대한 질의가 많아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2007년 국토교통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림면은 서일과 신암마을만이 재조사사업 대상지로 포함되어 있을 뿐 나머지 마을에 대한 파악은 전무한 상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에 경제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 23일 완주군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개사가 신규투자를 결정, 이들 기업들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에 신규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주)다인스, (주)디엔티, (주)에스엠이엔지, (주)인에코로 투자 협약식에는 4개 기업 대표를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서남용 산업건설위원장 등 총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체결한 4개 기업은 총 263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100여명의 신규고용도 계획하고 있다.

완주군에 투자를 결정한 (주)다인스(대표 박춘성)는 탄소섬유 응용제품 및 금속코팅 탄소섬유등을 생산하는 탄소기업으로 기업성장에 따른 제조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20여명을 신규고용 할 예정이다.

(주)디엔티(대표 정우중)는 살균 물결레정수기 '휴렘'을 개발한 글로벌 청년창업기업으로 사업의 확장과 조립라인을 일원화하고 생산력을 강화하



지난 23일 완주군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개사가 신규투자를 결정, 이들 기업들과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기 위해 신규 투자를 결정했으며, 30여명을 새롭게 고용할 예정이다.

(주)에스엠이엔지(대표 한정권)는 최근 아파트 화재대피시설 세이브라인의 매출 확대에 따른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25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주)인에코(대표 신재무)는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 친환경 건축내장재 에코블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신규투자를 통해 20명을 신규 고용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 기업들은 창업기업에서 시작해 꾸준히 성장한 첨단기업들로 지역경제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평가 올 A등급

시설·환경 등 6개 영역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전 영역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최근 발표했다.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7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전 영역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최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의 4개 시설유형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도내 12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2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7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의 6개 평가 영역을 모두 'A등급'으로 선정되었다.

평가내용 중 시설의 강점으로 시설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장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기관의 분위기가 권위적이지 않으며 장애인 시설들이 타운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종합 소견이 있었다.

인복지관 시설평가 최우수기관(A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강정만 관장은 "이번 평가결과는 김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 법인 임직원 및 복지관 직원들의 열정이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나눔 통해 지역사회 성장 할 것”

완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봉사단 발대식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양이)가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지난 23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가족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25가족 총 80여명의 가족봉사단이 참석했다.

가족봉사단은 매년 3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봉사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계획하고 주도적인 봉사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1차 간담회에는 가족봉사단 회원대표 20명이 참여해 2018년 봉사활동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대식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이번 발대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발대식이 2부에서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내용으로 채웠다.

1부 발대식에서는 봉사단 선서 및 위촉장 전달, 서약서 작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소통과 화합의 시간에는 봉사자와 나눔을 주제로 팀을 나눠 오브제 만들기를 통해 봉사자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존 및 신규 가족봉사단 간의 교류를 통해 친밀감과 소속감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김양이 센터장은 “가족봉사단 발대식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으며 가족봉사단 민의 색을 찾아가고 있다”며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둔산공원 짝공숲 조성

완주군이 기업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둔산공원 짝공숲을 조성한다. 지난 23일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북생명의 숲과 '주민, 기업 참여 둔산공원 짝공숲 조성 협약식'을 가졌다.

둔산공원 짝공숲은 둔산공원을 주민 참여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로 1주인 나무심기, 공원 내 주민 꽃 텃밭 분양, 어린이 꽃바구니 분양, 사계절 한국의 야생화 체험단지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북생명의 숲은 짝공숲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완주군이 추진 중인 1111소통기금과 연계해 나무기증운동을 펼쳐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이다. 또한 오는 29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둔산공원 짝공숲 조성 행사를 가진다.

둔산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봉사초등학교 학생, 유치원 원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북생명의 숲, 숲해설전문가협회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철쭉, 소나무, 편백, 꽃 등 기증나무 1500여주와 이미 분양이 된 야외꽃바구니를 식재한다.

특히 12개에 어린이집, 봉사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반별 이음표를 달고 꽃과 나무를 직접 심어 연중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시작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짝공숲은 ▲둔산공원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공원이 친구가 되다 ▲산단단지 입주 기업들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산단단지 기업단체, 진흥회와도 협력해 확대해 나갈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